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 출마 포부서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이사로 입후보한 김순희입니다.

저는 1989년도에 회원이 되어 2010년도까지 22년간 정규투어에 출전했으며, 이후에도 챔피언스 투어를 틈틈이 뛰면서 현재까지 현장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과 후배들의 노력으로 일군 튼튼한 협회 덕분에 선수로서 그리고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하였으며, 골프를 한 덕분에 현재는 대학의 골프 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협회를 세계 최고로 이끌어온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들의 빛나는 역량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협회 교육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우리 협회 회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회원들의 교육적 욕구를 해소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 우리 협회도 오랜 연륜에 따라 회원들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은 투어선수, 지도자, 골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협회의 정책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의 요구와 권익을 위한 협회로서 위상을 갖추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창립 후 대한민국의 여성 골퍼 및 우리 협회의 위상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변화해왔으며 향후에도 더욱더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자골프가 국내외에서 빛을 발하는 시대에 회원들이 투어 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는 걸 보니 저는 회원의 일원이라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올해 5월이면 입회 30년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겪었던 투어선수, 협회감사·상별위원장·교육위원장·국가대표지도자 그리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로 많은 경험을 살려 미래를 준비하는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힘을 보태기 위해 이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기반을 닦고, 우리 후배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협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될 각오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16일

성 명 : 김 순 희

